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유아임용 최종 합격**

**♡ 유입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한OO 수강생		수강방식	직강
응시지역	충남		병행 여부	올인
공부경력	초수		등수	충남 16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1점 논술: 16점	2차	수업실연: 49.5점 면접: 48점

좌우명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자. 노력은 배신할 수 있지만 헛된 노력은 없다.
-----	---

**<목차>**

- 0. 자기소개
- 1. 1차 공부 방법 - 영역별 / 시기별
  - 1) 고시문 / 해이실 / 법 / 논술
  - 2) 1~6월 개각론/건강안전
  - 3) 7~8월 문풀
  - 4) 9~10월 모고
- 2. 2차 준비 방법 및 상황 복기
- 3.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공부시간
-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정신건강 관리 방법)
- 5. 소감 (공부하며 느낀 점)

**0.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충남 지역에 합격한 초수 합격생입니다. 유아교육을 복수전공했고 졸업 후 2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공부를 시작해서 유치원 현장 경험도 없습니다. 정말 민망하지만 대학생 때도 주전공 공부에 집중하겠다며 유아교육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 유아교육과 전공 학점도 매우 안좋았습니다. 이런 저도 한 번에 합격하였으니 다른 분들도 모두 1년을 알차게 보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사례가 다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 1차 시험 공부 방법

### 고시문 공부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엑셀 파일을 사용해 타이핑으로 고시문 내용을 인출했습니다. 자동으로 O, X 체크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어요. 암기할땐 손으로 써보기도 하고 메모장 프로그램에 무작정 타이핑해보기도 했는데 저는 저를 믿지 못해서 인출할 땐 늘 자동 채점 되는 엑셀 파일로 확인받는게 마음 편했어요.

고시문 내용을 하나도 모르던 초반에는 누적복습 방식으로 고시문을 인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 월요일 : 신체 내용 암기 + 틀린 내용은 빈칸으로 두고 엑셀 파일 저장

화요일 : 신체 틀린 빈칸 인출 + 보완 / 의사소통 암기 및 인출, 틀린 내용 빈칸으로 두고 저장

수요일 : 신체, 의사 틀린 빈칸 인출 + 보완 / 사회 암기 및 인출, 틀린 내용 빈칸 저장

목요일 : 의사, 사회 틀린 빈칸 인출 + 보완 / 예술 암기 및 인출, 틀린 내용 빈칸 저장

..... (반복) .....

총론~자연 전체 내용 한 번 다 돌리면 다시 전체 내용 백지로 인출, 틀린 내용 보완 후 다시 누적복습 시작 >

초반엔 정말,,, 조사 하나까지 안틀리고 외워야되던 강박에 고시문에만 1시간도 더 넘게 투자했습니다. 반복할수록 자연스럽게 투자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결국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반복해야하니 조금 해하지마시고 매일 꾸준히 하면 완벽해지실거예요!

누적 복습으로 어느정도 완성이 된 것 같단 생각에 요일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1주에 1회독하는 계획을 짜서 돌렸었는데요.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휘발성이 너무 강한데 토씨하나 틀리면 안되는 내용이 라 주1회 전체 인출로는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2일에 1회 인출하는 계획(총론, 신,의/사,예,자)으로 바꾸었고, 시험이 다가온 10월부터는 다시 매일 전체 내용을 인출하는 계획으로 진행했습니다.

### 해이실 공부

1월~8월까지의 정말 말도 안되는 공부법으로 공부하다가 8월 말 운영 문풀에서 해이실 문제를 모조리 틀려 충격받아 공부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잘못된 공부법과 수정한 공부법을 모두 작성하겠습니다.

1월~8월에는 그냥 생각없이 매일 읽었습니다. 분량을 정해서 매일 아침 30분~1시간 동안 읽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없이 읽기만 하면 다 아는내용같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공부법을 최악이라는 자각도 없이 몇달간 반복했어요. 중간에 나름 더 나은 방법으로 수정한다고 한게 해이실과 요약자료 pdf 파일에 빈칸 뚫어 읽는 방법이었는데 이마저도 생각없이 그냥 빈칸 내용을 떠올려보는 수준에 그쳐 치밀하지 못한 공부법이었고 내용이 하나도 구조화가 되지 않아 운영 문풀에서 저의 밑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해설서 인출 목차		
<p><b>Section 01. 누리과정의 이해</b></p> <p><b>01.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배경 (2)</li> <li>- 공통과정으로서 &lt;5세 누리과정&gt; 제정 (2)</li> <li>- 공통과정으로서 &lt;3-5세 연령별 누리과정&gt; (3)</li> <li>- 교육과정으로서 &lt;2019 개정 누리과정&gt; 개정 (3)</li> </ul> <p><b>02.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li> <li>①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교육과정이란?</li> <li>-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li> <li>①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정의</li> <li>②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의미(2)</li> </ul> <p><b>03.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li> <li>①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li> <li>②초·중등 교육과정 제시 역량(6)</li> <li>③개정 이유 1</li> <li>-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li> <li>①'놀이'의 본질과 가치</li> <li>②개정 이유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놀이시간 확보 권장 (3)</li> <li>- 유아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한 재이해 (3)</li> </ul> <p><b>3. 5개 영역의 내용 간략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li> <li>①이유</li> <li>②교사는 59개 내용을 ~으로 이해</li> <li>③의의</li> <li>-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 지원(2)</li> </ul> <p><b>4. 교사의 자율성 강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을 반영하여 교사의 자율성 강조</li> <li>①교육과정 대강화란?</li> <li>②자율성 강조 이유</li> <li>-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li> <li>- 흥미 영역 운영 방식 자율화(2)</li> <li>- 5개 영역 통합 방식의 다양화(2)</li> <li>- 평가의 자율화(3)</li> </ul> <p><b>05.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격</li> <li>- 총론(2)</li> <li>①누리과정의 구성방향</li> </ul>	<p><b>④개인 수준의 다양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li> <li>①유아가 전인적으로 발달한다는 것</li> <li>②유아가 행복하다는 것</li> <li>③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지원 위해</li> <li>-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li> <li>①'유아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li> <li>②'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li> <li>-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li> <li>①자율성</li> <li>②창의성</li> <li>③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지원(2)</li> <li>-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li> <li>①교육과정 운영의 주체(5)</li> <li>②교사, 원장(감) (2)</li> <li>③학부모</li> <li>④지역사회</li> </ul> <p><b>02. 누리과정의 구성방향</b></p> <p><b>1. 추구하는 인간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구하는 인간상의 의미</li> <li>'정기적인 놀이'</li> </ul>

**해이실 인출 목차**

그 누구보다 해이실의 중요성에 공감하던 저였기에 이런식으로 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각론을 공부하던 방식으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1~6월 개론, 각론] 파트 참고) 하루 날을 잡아 해이실 요약자료를 기반으로 내용을 구조화하고 목차를 만들었습니다. 해이실 공부를 9월이 다 되어서야 시작한거나 마찬가지로였기에 핵심 내용을 잘 인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목차보다 더 세세하게 짚고, 목차를 보고 인출하는 과정이 곧 하나의 해이실 문제 풀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에 내용을 열심히 읽어둔 덕인지 구조를 세우고 몇 번만 반복하자 전체적인 내용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록 방향하는 시기가 있더라도 결코 헛된 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실행자료 목차 암기도 6월까지의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 7월부터 목차를 고시문 인출하듯 매일 엑셀 프로그램에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당장 눈앞에 쌓인 개각론 내용이 더 많아보여 위기감을 느끼지 못해 미루고 미루다 7월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모두 매일 인출하는건 시간이 오래걸려 이해/실행자료를 2일 분량으로 나누어 인출했습니다. 시간이 많은 1~2월부터 해이실도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놀이사례는 상반기부터 매일 1개씩 꼬박꼬박 읽으려 했어요. 현장경험이 적다보니 놀이사례에 나오는 놀잇감 명칭을 체크해 알아두기도 했고 배운 내용이 떠오르면 '이거 ㅇㅇ이론에서 말한건데!'하며 반가워하며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치만 이것도 문풀 기간엔 소홀해졌고 9~10월에 다시 조금씩 읽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법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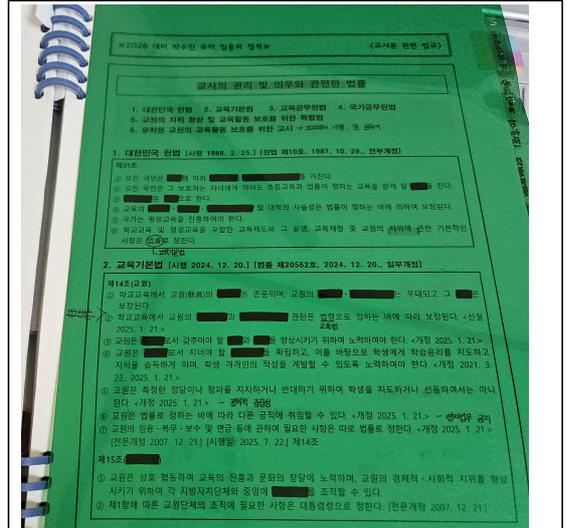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는 내용을 암기펜으로 칠해 빈칸을 뚫어놓고 시트지로 가려서 매일 30분씩 봤습니다. 그다지 사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잠을 깰 겸 책상에 앉아 읽었어요. 처음엔 봐도봐도 까먹는 것 같지만 매일 보다보면 어느순간 다 외워집니다.

6월까지지는 성실하게 봤는데 7월부터는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 주 문풀 내용에 해당하는 법만 집중해서 보고 가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신체운동·건강 문풀 주간에는 건강안전 법만 며칠동안 매일 반복해서 보고 완벽 마스터해서 문풀 들어가는식으로요..ㅎㅎ;; 복습하는 날에 다른 법도 가져와서 보려고했는데 못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9~10월이 되니 더더욱 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에 소홀해지더라고요. 이 기간엔 매일 보진 못했지만 몰아서라도 2주에 한 번은 전체 법을 1회독 하는걸 목표로 삼았어요.

그나마 상반기에 착실히 봐두고 문풀기간에도 그 영역에 해당하는 법 내용은 모두 마스터하려고 노력했기에 9~10월에 몰아서 봐도 내용이 휘발되지 않고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올해도 법이 만나와서 법을 공부해야될지 회의감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건 외우면 무조건 맞는거라 틀리기엔 너무 가까운 영역입니다. 몇 년간 만나왔다고 앞으로 절대 출제되지 않을 영역이란 보장도 없으므로 상반기부터 조금씩 투자를 해두시는걸 추천해요! 매일 30분만 하면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가 공부하지 않은게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커지므로 시간 많을 때 최대한 버리는 영역 없이 골고루 다 챙기시는게 나에게도 좋습니다.



빈칸을 뚫어놓고 매일 30분씩 인출하기

**논술 공부**

저의 모교는 4학년 때 논술 강의를 열어주셔서 그때 논술을 여러번 써보기도 했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서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1년동안 논술에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 16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모의고사 논술 문제를 풀 때 했던 실수를 실전에서 똑같이 반복하게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논술 기초반, 실전반, 모의고사 논술 문제 모두 알차게 잘 활용하셔서 꼭 논술 만점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에는 매주 직장 시간에 푸는 문제 하나와 과제로 부여되는 문제 하나 이렇게 주에 2개씩은 써보았고 풀어본 문제는 논제별로 한글파일에 정리했어요. 그치만 저는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는 잘 안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제를 다시 꺼내서 분석하며 복습했습니다. 실전반 마지막주가 되었을 때는 논술 감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고 이걸 문풀 기간에도 잘 유지하는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문풀이 시작되자 주차별 내용을 마스터하기에 급급해서 논술을 정말정말 소홀히 했어요. 주에 1번도 제대로 써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풀었던 문제를 보고 답을 대충 떠올려보고 바로 넘어가는 식의, 그저 '나 논술 하긴 했다'라는 느낌만 내기 위한 헛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9월에 진행된 1회 모의고사에서 문제의 요지를 완전히 잘못 파악해서 처참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충격적인 점수였고 '이제 9월인데 어떡하지? 이런식이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일 한시간씩 기출을 써나갔습니다. 2025학년도

기출부터 역순으로 실제 시험처럼 최선을 다해 썼고, 모의고사 2회차 논술에서는 다시 점수가 정상화되었지만 불안해서 그 이후로도 며칠은 매일 논술쓰기를 했어요. 9월의 1시간은 매우 큰 시간이었지만 논술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9월에 하는 실수는 7~8월에 하는 실수와 차원이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 꼭 문풀기간에 주 1회, 하다못해 격주로라도 무조건 논술쓰기를 계속 하면서 감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떤 실수를 자주 반복하는지 돌아보며 논술도 교육과정처럼 실수노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해요. 이번 논술 문제에 나온 교사 역할 명칭을 쓰는 것도 제가 모고 논술 때 지적받았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 감점되었고, 방안을 중복되게 써서 감점되었습니다. 모두 보완하려면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인데 논술에서 치밀하지 못했던게 점수로 이어졌다고 생각해요. 논술은 무조건 18~20점일 것이라고 자만하기보단 끝까지 겸손하게 임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시기별 : 1월~6월 이론반 과정 (개론과 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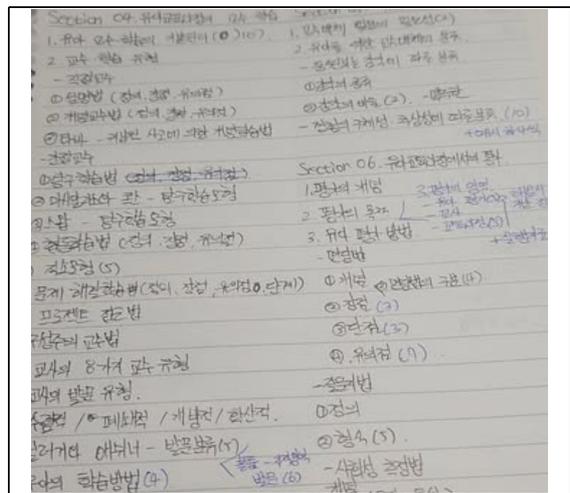
저는 그저 박수민 교수님께서 1월에 알려주신 공부법 그대로 6월까지 꼭 따라갔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 교재 보고 예습하면서 목차 세우고, 강의 듣고, 다음날 혼자 교재 복습하며 단권화하고, 바로 암기와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진도 나가는 6개월 내내 이 과정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중간중간 마음이 해이해진 기간에도 무조건 이 루틴은 지키고 놀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이게 결국 저를 합격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전부라 저만의 특별한 공부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주일 계획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금 : 다음날 수업 내용 예습

예습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파고들려고 하진 않았고 교재를 열심히 읽어만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해는 강의를 들으면서 할테니까요. 정말 가볍게 '그런가보다~', '이게 무슨소리지? 내일 되면 알겠지~' 하는 느낌으로 훑어만 보고 책에 나누어진 챕터, 섹션 기준으로 나름대로 목차를 짜봤습니다.

저는 이 **목차 세우기 예습을 정말정말!!!! 강추해요.** 당연히 예습할 때 짠 목차는 강의를 들은 후 다시 새로 짜야했지만 이렇게 스스로 목차를 짜보고 수업을 들으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 제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 목차에 넣지 않았으나 강의를 듣고보니 중요해보이는 것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정말 추천해요!!!!

사진에 있는 파란색은 강의를 듣고 수정한 부분입니다. 강의를 듣고 삭제한 내용도 있고, 추가한 내용도 있습니다.



↑ 예습하면서 세운 실제 목차 사진입니다.

② 토 : 직강 듣기

개각론 시기에는 9시반부터 수업 시작이라 8시반까지는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8시반부터 9시까지는 제가 미리 예습하면서 짜둔 목차와 책을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하며 간단하게 떠올렸고, 9시부터 9시반까지는 무조건 ★★★ **확인학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책을 보면서 확인학습 문제 답을 채워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발제발 이 소중한 문제를 자신의 암기와 이해를 잘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길 추천해요.** 확인학습 문제를 풀면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암기가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하루종일 풀집중하여 강의를 수강하고 저녁에 돌아가서 또 제 공부를 하려하니 도저히 머리에 안들어와 저녁엔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제가 세운 인출 목차만 재구조화하고 공부를 마무리했습니다. 돌아가서 당일 강의를 복습하려고 여러번 시도했으나 수업 끝나고 밤에 무리해서 공부를 하면 다음날 힘들어서 공부가 안되더라고요.

③ 일 오전~오후 : 토요일날 수강했던 강의 내용 복습 + 요약자료에 단권화

일요일에는 강의날 수강했던 교재 내용을 다시 복습하며 요약자료에 단권화했습니다. 저는 늘 미리 예습하고 나름대로 목차를 짜본 후 강의를 수강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과 강의시간에 강조하신 부분이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있어서 다음날 더욱 빠르게 복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배우는 내용인만큼 저 스스로 중요도나 키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것 같아 요약자료에 형광펜 표시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했고, 교재를 읽어보며 중요해보이는데 요약자료에 없거나 하는 내용을 자료에 추가하여 단권화했습니다.

+) 초반에는 영역별로 공부 스케줄을 나누어서 영역별 공부를 할때마다 교재 보면서 단권화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택했었는데(예: 일 오전에는 영역1 단권화 및 암기, 일 오후에는 영역2 단권화 및 암기), 그렇게 하니 화요일쯤 되었을 때는 강의 내용이 휘발되어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 강의 수강한 바로 다음날 모든 내용을 복습하고 영역별 스케줄을 나누어 암기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초반에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자신에게 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④ 일 오후~화 : 내용 암기 및 인출 (백지쓰기)

강의내용 전체 복습을 마친 후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역을 4~5개로 나누어서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모든 내용을 암기했고, **모든 암기와 인출은 제가 강의를 듣고 만든 저만의 목차를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암기 및 인출을 하면서 '목차를 이렇게 수정하면 다음에 인출할 때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과정에서도 계속 목차를 수정했어요.

사상 인출 목차	①필수역목(교육)	학교제도	아동관(2)	⑤유아교육과정	04.
Section 01. 한국	③직업/계급	저서	교육원리	유아교육적 의의(3)	1.
1. 종학에 나타난 유아교육 사상	④정의론	3. 르코	교육내용	3. 문태소리	목?
- 인간관	- 교육단계	- 교육사상	교육방법	- 교육사상	대:
- 체벌에 대한 입장	- 유아교육적 의미(3)	- 인간관	기관	- 아동관	- :
- 태내기 교육	3. 아리스토텔레스	교육목적		- 교육목적	- :
- 통학사상의 흐름	- 교육사상	- 교육내용(3)	03. 20세기 유아교육	- 교육이론의 주요개념	- :
①1대 의제	- 교육목적	- 교육방법(4)	1. 맥밀란 자매	①경상화(2)	1.
②2대 의제	- 교육내용	저서(2)	기관	②자유개념	2.
③3대 의제	- 유아교육	4. 루소	교육내용(4)	③인간기(개념, 구분)	- :
2. 소파 방정환	4. 로마시대	교육사상	부모교육 강조	④유수정신(개념, 단계)	- :
- 배경	5. 중세시대	교육목적	교사교육 강조	⑤존비던 환경	- :
- 아동관	- 아동관	- 교육내용(3)	2. 듀이	- 교육내용(2)	1.
- 교육관(2)	- 아동내용	- 교육원리 및 방법	전통적 교육관 ve 듀이의 고	- 교육방법(4)	- :
- 교육방법(3)	- 교육방법	저서	육관	- 교사의 역할(4)	- :
- 교육원리(2)	6. 르네상스&종교개혁기	5. 오베르탕	①교육목적	한계점	3.
- 어린이운동	7. 아동관의 이해	기관명	②교육내용	4. 니컬	- :
①예술문화운동(3)	①전성설	설립	③교육방법	- 인간관	- :
②출판운동(2)	②원리설	기관의 기능	④교사역할	- 교육사상(3)	- :
③소년운동단체(3)	③백지설	기관의 목표(3)	⑤특징	- 니컬의 '자유'	- :
Section 02. 서양	④성선설	6. 오웬	⑥배경철학	- 교육목적	- :
01. 고대사회-16세기 유아교육	02. 17-19세기 유아교육	교육사상(4)	⑦장점	- 교육내용(3)	- :
1. 소크라테스	1. 17-19C 교육철학(3)	교육기관(명칭, 설립, 구성)	⑧단점	- 교육방법	- :
- 교육사상	- 실학주의	유아학교의 교육목적(3)	- 배경	기관	1.
- 교육목적(2)	①배경	7. 페스탈로치	- 인간관(3)	5. 슈타이너	- :
- 교육내용(2)	②강조점	교육사상	교육사상(3)	①통합적 인간관	- :
- 교육방법	③목표	인간관	경험의 원리(2)	②구성체(4)	- :
- 교사역할	④유형	교육목적	교육목적	③기질론(4)	- :
2. 플라톤	- 계몽주의	- 교육내용	교육방법(2)	- 교육목적	- :
- 교육사상	- 신인문주의	교육원리	기관(3)	- 교육내용/ 발달단계론	- :
- 교육목적	2. 코메니우스	가정교육	교사의 역할(4)	- 교육방법	- :
- 교육내용	- 교육사상(3)	저서(3)	놀이/흥미에 대한 듀이의 입장	- 요이리트미	- :
- 인간의 본성(3)	- 교육목적	8. 프뢰벨	①놀이와 활동에 대한 관점(2)	기관	- :
①본성(영혼)	- 교육내용(3)	교육목적	②놀이		
	- 교육원리(4)/교육방법	신성(3)	③흥미(2)		
			④흥미의 구성(4)		

↑ 직접 만든 인출 목차

모든 내용을 완벽히 암기하기만 하면 무조건 붙는 시험이라는 생각에 이때는 요약자료에 있는 모든 내용을 편식하지 않고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며칠만 지나도 까먹지만 강의 듣고 난 후 일주일동안 잘 다져놓고 복습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외울 때 속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7월 이후 문풀에 들어가자 상반기에 사소해보이는 내용까지 모두 암기해놓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암기가 힘들어서 상반기에 중요 내용만 암기하겠다는 분들이 종종 보이는데, 절대, 절대, 절대!!!! 그러지 마시고 **1월~6월 시간 많을때 여러 내용들을 모두 잘 다져놓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중요한 내용은 문풀, 모고 때 무한반복하면서 자동으로 외우게 되니 시간 많은 상반기에 겹다리 부분도 같이 보시길 바라요. (그렇다고 이상한 내용에만 몰입하는건 지양해야겠죠...?! 균형을 잘 잡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백지쓰기 방법 : 저는 제가 만든 목차를 펼쳐두고 요약자료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백지에 써보고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백지에 목차부터 내용까지 한번에 모두 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그러다가 인출해야 할 목차를 빼먹을까봐 불안했어요. 늘 저를 의심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목차 인출은 제가 전체적인 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따로 진행했고, 내용 인출은 목차를 펼쳐둔 상태에서 했어요. 목차와 내용 모두 각각 다른 시험의 대상이었던거죠. 매일매일의 백지쓰기가 하나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목차를 보자마자 핵심 내용이 떠오르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해나갔습니다.

⑤ 수~금 : 본 영역 계속 복습 + 다른 영역 1가지 복습

수~금까지는 그 주에 암기한 내용을 계속 복습하고 지난 학습 영역 중 하나도 가져와 복습했습니다.

지난 영역은 당연히 전체 복습하진 못했고 중요한 부분이나 제가 부족했던 파트만이라도 꼭 가져와서 복습하려 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1순위는 그 주에 학습한 내용을 완벽히 마스터하는 것이었어요.

스터디 방법	스터디 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스터디 진행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주 주관식 3문제, 서술형 5문제 출제</li> <li>수업 끝나자마자 문제 업로드, 각자 서로의 문제를 푼다</li> <li>다 풀고 각자 미리 준비해온 모범답안을 올린다</li> <li>교환해서 채점하기</li> <li>채점한 답안지 찍어서 댓글로 업로드</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개론 1회독&gt;</p> <p style="text-align: center;">♥스터디 진행계획♥</p> <p>4/5 놀이 4/12 발달 4/19 성격 + 교사론 4/26 사상 + 부모교육론 #</p>
문제 예시	
<p>#부모교육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드라이커스는 부모-자녀 간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 ) 부모교육이론'을 수립하였다. ( )에 들어갈 말을 쓰고, 해당 이론에 근거하여 사례 속 지후의 잘못된 행동 목표와 부모를 위한 대안을 쓰시오. &lt; 부모 : 요즘 지후가 자꾸 저를 난처하게 하는 행동을 해요. 저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 예선 밥을 잘 먹다가 갑자기 저를 포크로 찌르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는데... 그 행동은 잘못된거라고 크게 혼냈지만 정말 당황스럽고 민망했어요. &gt;</li> <li>다음은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의 대화이다. 각 대화에서 드러난 프로그램의 단계 명칭을 쓰시오. 1)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2) 다른 부모들과 아이를 키울 때 겪었던 고통을 나눈 점이 도움이 됐어요. 3) 좋은 부모가 되려면 대화할 때 아이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4) 이제부터는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양육 기술을 실행해 보려고 해요</li> <li>부모 면담의 유형 중 하나인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개론 + 각론 1회독&gt;</p> <p>4/26 - 사상, 부모교육, 동작(사 2, 부 2, 동 4) 5/3 - 언어 발달, 놀이 5/10 - 언어/문학교육, 성격 5/17 - 사회정서발달, 교사 5/24 - 사회교육, 사상 5/31 - 음악, 미술 (개론 없음) 6/7 - 과학, 발달 6/14 - 수학, 부모</p> <p style="text-align: right;">개론 3 (서술 2, 단답 1) 각론 4 (서술 3, 단답 1)</p>

**\*\*\*개각론 복습 스터디\*\*\***

개론이 끝난 후 3월부터 매주 한 파트씩 개론을 복습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다시 보니 다 모르는 것 같고 본영역 공부도 하면서 모르는걸 다시 완벽하게 하려하니 진도가 잘 안나가서 힘들었습니다. 3월에 2주동안 발달 하나를 다 복습하지 못하고 공공 앓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4월부터는 같이 직강을 듣는 친구와 함께 복습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4월에 개론 한바퀴, 5~6월에 개론+각론 한바퀴를 돌렸습니다. 상세한 계획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공부가 잘 됐든 안됐든 무조건 직강 수업이 끝난 후 해당 영역과 관련된 문제를 밴드에 올려 그자리에서 문제를 풀고, 서로 채점해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스터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조금씩 지난 영역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중요 내용이나 기출 중심으로 변형해서 문제를 내니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이 틀린 날에도 상대가 문제를 낸 것은 중요한 내용이니 그 부분만이라도 보완하며 복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매우매우매우 추천해요!!!

**\*\*\*기출 문제 공부\*\*\***

기출 강의 스케줄에 맞춰 전날 미리 풀어보고 기출 해설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출 답만 알려주시는게 아니라 제시문의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 기출이 최근에 어떻게 변형되어 나왔는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꼭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공부한 내용을 바로 기출로 풀어보면서 해당 개각론 영역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어서 좋

왔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고난 후 저 혼자서도 기출 제시문 내용과 답안을 꼼꼼히 분석해보기도 했습니다. 한 영역의 기출 강의를 수강한 후 그 영역과 관련된 문제가 기출된 연도를 단권화 자료에 표시하며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제시문 내용이나 답안을 한글파일에 정리해 작게 프린트해서 단권화 자료에 같이 붙여두고 복습할때마다 계속 보려고 했는데 사실 전혀 도움이 안됐어요.... ㅎㅎ;; 저는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는 것보단 영역별 기출문제 프린트를 통째로 보고 분석하는게 더 잘맞았어서 각론 뒷부분은 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기출 문제 공부는 당연히 시험 직전까지 가져갔고 9~10월에는 기출을 기반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은지 계속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시험 전 마지막 모의고사 수업이 끝난 후 직강을 함께 듣는 친구와 함께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야기해보았는데 꽤 많은 내용이 적중했어요. 기출이 곧 앞으로 나올 문제의 힌트입니다!

**건강 · 안전 파트 공부**

3월에 건강안전 영역 진도가 나가고, 제가 공부하던 루틴에 따라 배운 내용을 그 주에 다 암기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원래 계획인 화요일까지 마무리하진 못하고 수요일까지 내용을 질질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겨우겨우 다 암기하고 보니 이걸 기억이 휘발되면 정말 수습 불가일거란 생각이 들어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안내해주신 스터디 계획을 토대로 조금 변형해 유임정 카페에서 밴드 스터디를 모집했습니다.

진행방법	문제 예시
<p>1. 기간 : 3/31(월)~8/29(금) (연장 여부 추후 논의)</p> <p>2. 5월까지 2주 회독 플랜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첨부된 2주 회독표를 참고해주세요</p> <p>3. 출제 요일은 5월까지 2주에 한 번씩 바뀔 예정입니다. 매달 올라올 출제일정표를 확인해 주세요~</p> <p>4. 스터디 진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표에 따라 건강안전 내용을 공부한다</li> <li>-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요일 <b>점심 12시 전까지 3문제를</b> 업로드한다 (문제 양식 자유)</li> <li>- 이 때, 답안은 문제풀 때 보이지 않게 댓글에 <b>파일로</b> 첨부한다</li> <li>- 다른 스터디원들은 가능하면 <b>당일</b> 자정까지, 어려울 경우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문제를 풀어 댓글로 인증한다</li> </ul> <p>5. 문제 출제자는 정말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이상 담당 요일에 꼭꼭꼭!! 문제를 내주셔야 합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일자에 사정이 있을 경우, <b>밴드 예약글 기능 or 전날 미리 출제</b>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주세요!!</li> </ul>	<p><b>#재난안전</b></p> <p>1. 다음은 폭염영향예보 기준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 : 일최고체감온도 ( )°C 이상, ( )일 이상 지속</li> <li>- 주의 : 일최고체감온도 ( )°C 이상, ( )일 이상 지속</li> <li>- 경고 : 일최고체감온도 ( )°C 이상, ( )일 이상 지속</li> <li>- 위험 : 일최고체감온도 ( )°C 이상, ( )일 이상 지속</li> </ul> <p>2. 화재 시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방법을 쓰시오.</p> <p><b>#응급처치</b></p> <p>3. 다음은 교사의 상황별 응급처치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치시오.</p> <p>(㉠) 가슴압박소생술을 할 때 양측 젖꼭지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 중앙을 3cm깊이로 분당 60~80회 압박하였다.</p> <p>(㉡) 추위에 노출된 유아의 젖은 옷이나 신발을 벗기고 몸을 녹이기 위해 피부를 세게 문질러주었다.</p> <p>(㉢) 유아가 벌레 쏘여서 쓰여져 구급상자에 있던 소독된 핀셋으로 벌침을 제거해주고 항히스타민 연고를 발라주었다</p> <p>(㉣) 유아가 어지럽다며 열사병 증상을 보여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겨 너무 차갑지 않은 물수건으로 머리, 얼굴, 겨드랑이를 식혀주었다.</p>

[2주 1회독]						
	월	화	수	목	금	
계 획 표	1주차	건강교육 개요 + 정신건강	영양관리 + 식생활지도	감염병	안전교육 개요 + 실내외 안전	교통안전 +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개요 1. 머리를 부딪혔을 때	2. 눈을 다쳤을 때 3. 코나 귀에 이물질	4. 코피나 치아 5. 이물질이 눈에 걸렸을 때	6. 독극물 마셨을 때 7. 가슴이나 배 부딪혔을 때	8. 팔 다리 다쳤을 때 9. 손가락이 질렸을 때
2주차	성폭력	아동학대	실종 유괴 + 전자미디어	자연재난	사회재난	
	10. 피부에 상처 11. 보족한 것에 찔렸을 때	12. 피가 날 때 13. 화상을 입었을 때	14. 감전되었을 때 15. 물에 빠졌을 때	16. 물렸을 때 17. 곤충에 쏘였을 때	18. 추위나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19. 심폐소생술	
[1주 1회독]						
월	화	수	목	금		
건강교육 전체	안전교육 개요 + 실내외 안전 +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 성폭력	아동학대 + 실종유괴 + 전자 미디어	재난안전		
응급처치개요/머리	눈 / 코,귀 / 코피,치아 / 이물 질 / 독극물	가슴,배 / 팔,다리 / 손가락 / 피부상처 / 보족한것	피 / 화상 / 감전 / 물에빠짐 / 물렸을 때	곤충 / 추위,햇볕 / 심폐소생 술		

2주에 1회독 주기로 4회독을 하고, 그 다음부터 1주 1회독하는 방식으로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정말 열정 넘치고 성실하신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상세 계획은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초반에 강의를 듣고 잘 다져둔 상태였기 때문에 스터디 문제를 낼 때, 그리고 문제를 풀고 다시 복습할 때만 공들여 공부했고 추가적인 개인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기억은 안나지만 매일 30분~1시간 정도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5개월 동안 월~금 매일매일 스터디를 진행하니 대부분의 내용은 모두 강제 암기가 되어있었고 스터디가 끝난 모고 기간에도 간단하게만 복습해주면 기억이 잘 휘발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추천하는 스터디입니다!

7대안전, 아복법 별표 내용은 절대 틀려선 안되는 내용이라 생각했고 이걸 상반기부터 성실하게 암기, 인출했어요. 7대, 아복법 격일로 '7대/아복법/7대/..' 순서로 번갈아가며 인출했습니다. 타이핑해 인출하면 자동으로 O, X 표시를 해주는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려 했고 교육방법까지 모두 외웠어요. 문풀기간엔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주에 1회 겨우 인출한 기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상반기에 시간투자를 많이 해놓으니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리더라고요. 9월부터는 다시 막판 다지기를 위해 격일로 매일 인출했습니다.

# 시기별 : 7월~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지금까지 쪽 수기를 읽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이 시기가 제가 가장 정신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의 기반을 다진 시기입니다. '인출-암기-보완'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계속 쓰면서 공부하니 손목이 약해져서 한의원, 정형외과 온갖 병원을 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간 11월에 답안지를 못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 7월부터 입으로 뺨긋거리며 인출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쓰면서 하다가 입과 머리로 인출하니 적응이 어려웠는데 하다보니 익숙해졌고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외우는건 무조건 써야만 머리에 들어오는 타입이라 끝까지 외워지지 않는건 감지를 써서 외웠고 인출은 입과 머리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부 스케줄은 역시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그대로 따라 공부했습니다. <문풀 영역 공부 - 하루 텀 두고 다른 공부 - 문풀 - 다른 공부> 이런 식으로요. 구체적인 요일을 예시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직강일인 토요일을 문제풀이 및 강의 수강일로 가정하였습니다.)

**① 화~목 : 문풀 영역 공부**

저는 문풀 영역을 공부하는 기간을 3일로 잡았습니다. 이 3일동안은 해이실, 고시문, 법 등 매일 해야 하는 공부에 소홀해졌고 오로지 문풀 영역을 완벽히 마스터하는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한 것X, 정말 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되겠을 때만 미루고 그 주의 다른날 무조건 보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한건 아니었으나 이틀안에 전체 암기를 끝내고 하루동안 이론서 전체를 정독하며 이해를 다지는 과정을 소화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먼저 화, 수는 기출을 다시 분석하고 단권화 내용을 인출 및 재암기하며 기본적인 내용을 보강하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그다음 목요일은 이론서를 꼼꼼히 읽으며 머릿속에서 인출과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썼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출하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론서를 읽을 때 소제목을 보고 관련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먼저 머리에 주르륵 떠올려본 후,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게 맞는지 이론서를 읽으며 혼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목차 보고 인출하던게 책의 소제목을 보고 인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인거죠. 단권화 자료를 토대로 암기를 다지고 다시 이론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과정은 제가 놓친 내용이나 이해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보강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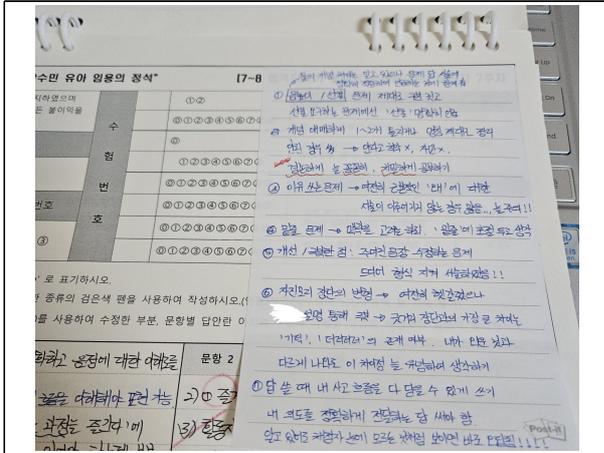
**② 금 : 다른 영역 공부**

교수님께서 문제풀이반 OT에서 문제풀이 전날에는 문풀 영역이 아닌 다른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했다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말씀을 무조건 지키려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 자연탐구, 운영 외에는 모두 이 조건을 철저히 지켰어요. 자연탐구, 운영은 상반기에 충분히 복습할 시간이 부족했어서 문풀 영역을 준비하는 3일 안에 다 마스터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TT 이런 특이 케이스 외에는 목요일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는 한이 있어도 금요일에는 무조건 다른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하루 쉬고 문제를 풀면 제가 제대로 이해, 암기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좋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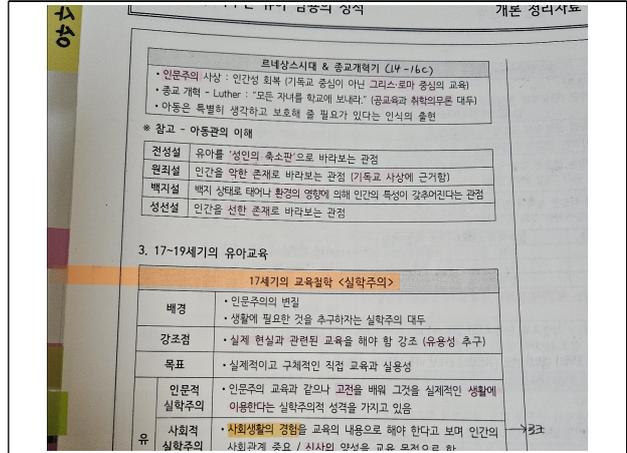
이때는 문풀 영역을 공부하는 기간인 화~목에 시간이 없어 뒷전이 되었던 해이실, 법, 건강안전 등의 공부를 보강했고, 복습 영역으로 설정한 것을 데려와 복습했어요. 이때도 1~6월에 다른 영역을 복습할 때 그랬듯 제가 특히 어려워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예: 사회관계 파트에서 특히 사회교육 파트가 부족하니 그 부분을 중점 복습)

**③ 토 : 문풀 및 해설강의 수강**

교수님의 문풀 문제는 알게 애매하게 공부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이론서를 토대로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달달 암기가 되어있어야만 "이걸 묻는거구나!"하고 시간안에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특히 많은 문제와 서술에 비해 시간이 한정적인데, 저는 오히려 무조건 이 시간 안에 푸는걸 목표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1~2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 안에 풀어냈습니다. 제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까지 완성하려면(답안지 작성은 1교시 문제 한정) 문제를 읽자마자 문제에서 묻는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안 내용이 바로 머리에 떠올라야하고, 떠올리자마자 답안도 바로 술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상 애매하게 공부해서 헛갈리는 문제가 하나 나와 거기서 시간을 조금 뺏기니 바로 제시된 시간을 초과해버리더라고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소화하면 무조건 시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문풀에 대한 자기평가



틀린 내용 인덱스

해설강의를 들으면서도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발견되었기에 강의를 들으면서 꼼꼼히 필기하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적극적으로 내용을 떠올리며 인출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후 질문 줄을 기다리며 제가 틀린 내용을 단권화 자료에 인덱스로 표시하고 추가해야 할 내용은 추가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스스로 보완해야 할 점(내용 측면 뿐 아니라 풀이 태도, 서술 방식 등)에 대한 자기평가를 진행해 답안지 앞에 붙였습니다.

④ 일 : 부족한 내용 보완, 오답노트 작성

문제와 모범답안을 토대로 다시 적극적으로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제지, 모범답안을 꼼꼼히 보면서 단권화 자료에 필요한 내용을 보충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형광펜으로 칠해서 단권화 자료에 적극적으로 형광펜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하는 부분은 파란색으로 필기를 해주어서 복습을 할 때마다 제대로 이해를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저의 인출 목차에 반영하여 다음 복습 때 해당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공부의 기반은 언제나 인출 목차였기에 이 목차는 10월까지도 계속 수정됐어요.

오답노트는 문풀 첫 시간에 안내해주신대로 손바닥 크기의 작은 메모장에 틀린 키워드만 쓰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공부 스타일이 공부할 때 주기적으로 쉬는시간을 갖는게 아니라 앉아서 쪽 공부하고 화장실만 갔다와서 다시 앉아서 이어서 공부, 그리고 쉴 땐 아예 통으로 오랜기간 폭 쉬는 스타일이라 짹짹 오답노트를 보는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답노트 보는 시간을 따로 정해버렸어요. '스터디카페 도착해서 공부 시작 전 30분은 무조건 오답노트 보는 시간'으로 정해두니 오답노트를 미루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도 자투리 시간에도 계속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고 스터디카페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숨이 막힐 때 옥상이나 휴게실에 가서 오답노트를 보며 환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⑤ 월 : 다른 영역 공부 및 휴식

다른 영역 공부는 <②금>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날엔 반나절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 시기별 : 9~10월 모의고사반

이 시기는 끊임없이 했던 내용을 다지고 또 다지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시기였기에 특별한 공부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한 회독과 모르는 내용 변별 및 보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땐 모르는 것도 머리로 몇 번만 봐도 다시 외워졌기 때문에 쓰면서 공부하지 않고 모두 입과 머리로 인출, 암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9~10월 회독 주기와 모의고사 점수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 이를 먼저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독 주기	모의고사 점수
9/1~9/20 (3주) - 1회독	1회차 : 70초반 (논술 10점)
9/21~10/2 (2주) - 2회독	2회차 : 70후반
10/3~10/8 > 부족한 내용 집중 보완	3회차 : 80초반
10/9~10/17 (9일) - 3회독	4회차 : 85점
10/18~10/26 (9일) - 4회독	5~7회차 : 기록 없으나 80점대 초반 정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기억
10/27~11/1 (6일) - 5회독	(합격수기에 꼭 쓰려고 분명 기록해두었는데 못찾겠네요... 제가 쓴 일기를 토대로 유추하여 남깁니다 ππ)
11/2~11/4 (3일) - 6회독	
11/5~11/6 (2일) - 7회독	
11/7 (1일) - 각론만 다 봤고 개론은 훑기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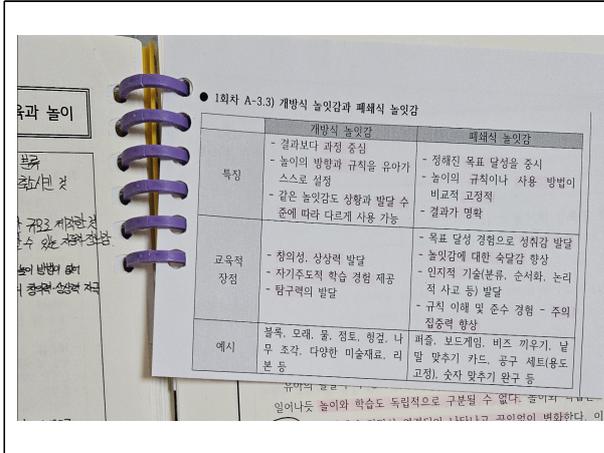
<모의고사 활용 방법>

모의고사 때부터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풀건지, 답을 어떻게 쓸건지 여러 방식으로 연습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험지에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겨쓰는게 아니라 바로 답안지에 쓴 후 여유있게 검토 시간을 갖는게 더 잘 맞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답안지에 바로 정답을 쓰는 연습이 잘 되어있어서 시간 안에 여유있게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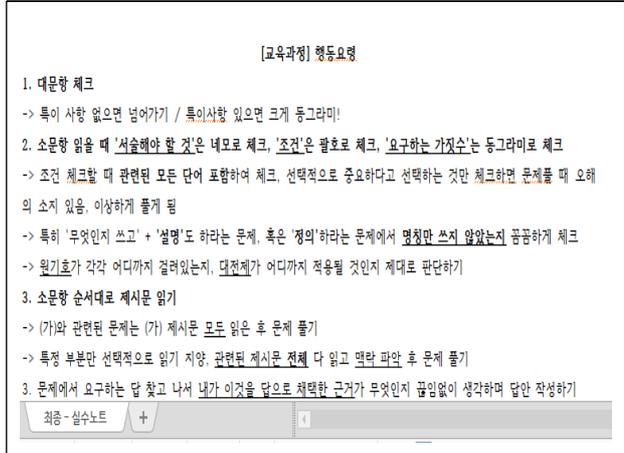
저는 늘 모의고사를 풀고 점수를 냅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꽤나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실력이 어느정도 다져졌다는 생각이 들자 모의고사 점수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채점해보고 냉철하게 점수를 매겨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채점 후엔 모범답안을 읽어보며 키워드를 고민했고 틀린 내용, 키워드가 빠진 내용 등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문풀 때와 같이 인덱스로 단권화 자료에 표시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인덱스는 시험 한달 전부터는 다 떼어내려고 했고 시험장에 들어갈 땐 끝까지 모르는 내용만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의고사 기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중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한글파일로 정리해 출력해서 단권화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해설지 통째로 보려고 했는데 잘 안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독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볼 수 있게 사진과 같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인출 목차에 추가해서 계속 암기하려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출 목차는 모의고사 기간이 끝날때까지 계속 수정했어요.



모의고사 추가 단권화



실수노트 정리본

모의고사 때부터 자기평가 포스트잇을 따로 쓰지 않고 한글파일로 실수노트 정리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때 계속 수정한 이 파일을 시험장에까지 들고갔어요.

<회독 방법>

저는 모의고사 OT에서 안내해주신 계획대로 처음에는 2주 1회독으로 시작해 점차 10일에 1회독, 1주 1회독으로 줄여나가보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잘 안되더라고요. 제 성격상 꼼꼼히 모든 내용을 깊게 완벽하게 공부하려해서 9월에 첫 회독을 할 땐 2주 1회독에 실패하고 거의 3주에 걸쳐 꾸역꾸역 첫 1회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도 조금해하지는 않으려 했고 '어쨌든 3주 가까이 걸쳐 1회독을 마무리지었으니 이제 2주 1회독에 도전해보자!'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제 수기엔 유독 계획표가 없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전 아무리 계획을 열심히 세웠어도 공부 상황에 따라 제 마음대로 다시 계획을 무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온전한 계획표가 없어요.. 어쨌든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회독 주기를 줄여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점검하는 공부법에서 벗어났습니다.

2회독때부터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모르는걸 파악해서 그부분만 보완하는걸 목표로 했어요. 인출 목차를 보고 내용을 머리로 떠올려본 뒤 아는건 넘기고 모르는 것만 목차에 표시한 후 즉각 보완했습니다. 이때쯤엔 단권화 자료의 내용 위치를 암기한 상태여서 해당 페이지와 관련된 목차 내용을 인출하고 바로 자료를 확인해 모르는 내용 암기 후 바로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예: 발달 요약자료 3~4페이지는 ○○부터 XX까지의 내용이 있으니 목차 ○○부터 XX까지 인출하고 바로 자료 보면서 모르는 내용 보완, 그 다음 5~6페이지는 □□부터 ○○까지의 내용이 있으니 □□부터 ○○까지의 내용 인출 후 5~6페이지에서 바로 모르는 내용 확인, 보완) 이런식으로 공부한 다음 저녁에 다시 목차에서 체크표시해두었던 것만 다시 인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인출 및 보완에 사용된 목표 시간과 실제 소요된 시간을 기록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p><b>발달 인출 목차</b> (2h)</p> <p>Section 01. 02. 발달의 의미/원리 및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의 의미(4)</li> <li>- 발달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3)</li> <li>- 발달의 원리(9)</li> <li>- 질적 변화 vs 양적 변화</li> <li>- <b>발달의 특질(7)</b></li> <li>- 발달에 적합한 심재(3)</li> </ul> <p>Section 03. 발달이론</p> <p>01. 개별의 성숙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관점</li> <li>- 준비도</li> <li>- <b>발달의 기본원리(6)</b></li> <li>- 유아행동연구</li> <li>- <b>교육의 방향(5)</b></li> <li>- 교사역할(4)</li> </ul> <p>02. 정신분석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ud - 심리성적 발달 이론</li> <li>- 기본가정</li> <li>- 정신의 구성요소(3)</li> <li>- 성격의 구성요소(3)</li> <li>- <b>형성</b></li> <li>- <b>원리</b></li> <li>- 초자아의 구성요소(2)</li> <li>- 성적발달단계</li> <li>- 기본 기준</li> <li>- 성적 발달 요인</li> <li>- <b>성적 발달 단계(6)</b></li> <li>- 교학적 현상</li> <li>- 개념</li> <li>- <b>현인</b></li> <li>- 유행(3)</li> <li>- 불안</li> <li>- <b>기질</b></li> <li>- <b>유형(3)</b></li> </ul>	<p>- 방어기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특징(2)</li> <li>②유형(13)</li> <li>- 방어기제에 대한 교사의 대처</li> <li>- 유아교육에 주는 시사점(4)</li> </ul> <p>2. Erikson - 심리 사회적 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가정(4)</b></li> <li>- 단계(4)</li> <li>- 특징</li> <li>- 발달 방법</li> <li>- <b>과업</b></li> <li>- <b>특징</b></li> </ul> <p>03. 행동주의이론</p> <p>1. Pavlov - 고전적 조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화</b></li> <li>- 학습원리(4)</li> <li>- 관련개념</li> <li>- 소거</li> <li>- 자극적 회복</li> <li>- 자극 일반화</li> <li>- 자극 변별화</li> </ul> <p>2. Watson - 행동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습의 3대 법칙</b></li> </ul> <p>4. Skinner - 조작적 조건화 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념</li> <li>- 강화의 개념</li> <li>- 강화의 유형(2)</li> <li>- 강화 계획 (2)</li> <li>- 강화의 원리 (4)</li> <li>- 강화물의 종류</li> <li>- 사회적 강화물</li> <li>- <b>1차 강화물</b></li> <li>- 2차 강화물</li> <li>- 벌</li> <li>- 개념</li> <li>- 종류(2)</li> <li>- 문제집(2)</li> <li>- <b>바람직한 사용(5)</b></li> </ul>	<p>- 소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개념</li> <li>②소거फल</li> <li>- 바람직한 행동의 강화를 위한 방법 (6)</li> <li>- <b>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수정을 위한 방법(9)</b></li> </ul> <p>Bandura - 사회학습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가정</li> <li>- 관찰학습의 단계(4)</li> <li>- 강화 유형(3)</li> <li>- 관찰학습의 유형(5)</li> <li>- 관찰학습의 효과(3)</li> <li>- 자기효능감</li> <li>- 상호결정론</li> </ul> <p>04. Piaget - 인지발달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가정</li> <li>- 인지적 도식(3)</li> <li>- 인지적 과정(6)</li> <li>- 인지발달단계</li> <li>- 감각운동기</li> <li>- <b>문제해결능력(6)</b></li> <li>- <b>모방</b></li> <li>- <b>대상</b></li> <li>- 전조작기 사고특징(10)</li> <li>- <b>기호적 기능 개념 + 예</b></li> <li>- <b>이중보통화</b></li> <li>- <b>구체적 조작기 특징 (4)</b></li> <li>- <b>인지발달의 4가지 요인</b></li> </ul> <p>05. Vygotsky - 인지발달이론 (사회화학적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가정</li> <li>- <b>공동정신기능의 발달(3)</b></li> <li>- 근접발달영역</li> </ul>	<p>①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한계</li> <li>③보완</li> <li>- Rogoff - 유도된 참여(안내된 참여)</li> <li>- 비계설정 개념</li> <li>- Berk&amp;Winsler - 비계설정 구성요소(3)</li> <li>- <b>비계설정 목표(2)</b></li> <li>- <b>비계설정 유형(6)</b></li> <li>- Sigel - 거러두기 전략(3)</li> </ul> <p>+) 피아제 vs 비고츠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문화적 영향</li> <li>②인지성장의 시작</li> <li>③발달과 학습의 관계</li> <li>④인지와 언어의 관계</li> <li>⑤가상놀이에 대한 관점</li> </ul> <p>06. Bronfenbrenner - 생태학적 체계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가정</li> <li>- <b>전이</b></li> <li>- 환경체계(5)</li> <li>- 아동 발달과 환경의 관계(2)</li> </ul> <p>07. Gardner - 다중지능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본가정</b></li> <li>- <b>특징(6)</b></li> <li>- 자능 종류(8)</li> <li>- 평가 도구(지능검사도구)</li> <li>- <b>차이점(5)</b></li> </ul> <p>08. 동물행동학적 관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가정</li> <li>- Lorenz</li> <li>- Bowlby</li> <li>- 생리적 시기</li> </ul> <p>09. 인본주의 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가정</li> <li>- Maslow - 욕구위계이론</li> <li>- 기본가정</li> <li>- <b>고등정신기능의 발달(3)</b></li> <li>- <b>근접발달영역</b></li> </ul>	<p>Rogers - 인본주의 심리학(인간중심 접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기본가정</li> <li>②현상학적 장</li> <li>③자아개념(2)</li> <li>④자아실현 경향성/실현화 경향성</li> <li>⑤공정성 존중(2)</li> <li>⑥가치의 표현/가치의 조건화</li> <li>⑦조건적 자기존중</li> <li>⑧충분히 기능하는 사람</li> </ul> <p>10. 정보처리이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가정</li> <li>- 애트킨슨&amp;슈피르(Atkinson&amp;Shiffrin)</li> <li>- <b>배들리(Baddeley)</b></li> <li>- 감각기억</li> <li>①용량</li> <li>②지속시간</li> <li>③저장내용</li> <li>④주의집중</li> <li>⑤주의의 유형(2)</li> <li>⑥자동화</li> <li>⑦재활</li> <li>- 단기기억(작업기억)</li> <li>⑧지속시간</li> <li>⑨저장내용</li> <li>⑩정보보전방법(3)</li> <li>⑪망각에 대한 이론(2)</li> <li>- 장기기억</li> <li>①용량</li> <li>②지속시간</li> <li>③정보의 저장(3)</li> <li>④스크립트</li> <li>- 상위인지</li> <li>①개념</li> <li>②상위인지기술</li> <li>③발달적 차이</li> <li>④개념적 차이</li> </ul>
--	---	---	--	--

↑ 인출 목차표에 안외워지는 내용 표시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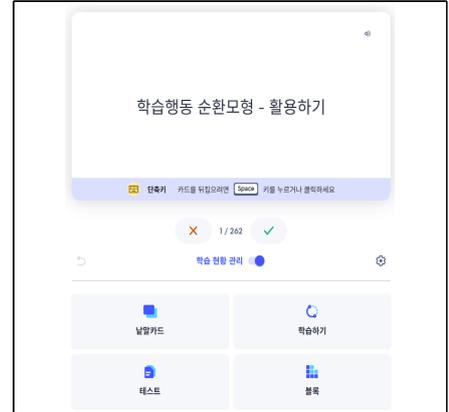
노랑 : 한 번만에 보완 / 파랑 : 두 번만에 보완 / 빨강 : 세 번째까지 보완 안됨. 공들일 필요 O

2회독 후에 10월 회독 계획을 짜보았는데 여유가 좀 있길래 제가 부족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집중해서 보완하니 그다음 더 짧아진 회독 주기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10월부터 회독 주기가 더 늘어지면 안된다는 생각에 완벽하지 않아도 후다닥 넘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D-12	D-11	D-10	D-9	D-8	D-7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01일
	월	화	수	목	금	토
개론 2h	교사론	사상	성격	놀이	발달	부모
각론 4h	신,문학	언어	사	예	자	운
빠른회독 30m	사	예	자	운	신	의
복습 2h	성/사	놀/예	발/자	부/운	교/신	사/의

3회독부터는 특정 영역만 꼼꼼히 깊게 보기보단 여러 영역을 자주 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본적인 이해와 핵심 키워드 정도는 완성되었기에 휘발되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공부할 개론/각론 영역을 정해두고, 빠른 회독 영역과 복습 영역을 추가했습니다. 빠른 회독은 정말 빠르게 단권화 자료를 30분간 눈으로 속속 훑으며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다가 까먹은 내용이 눈에 들어오면 보완하고 넘어가기도 했는데 이건 오로지 회독 기간 사이의 공백을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었기에 무조건 30분만 투자했고 30분이 지나면 바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복습 영역은 제가 이전에 인출 목차에 모른다고 표시해두었던 부분들만 다시 인출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해져 빠른회독과 복습영역은 소홀히했습니다..^^;

오답노트 보는 시간도 더 늘렸어요. 문풀 때 30분이던 오답노트 시간을 아침 30분, 공부 끝나고 30분, 하루 1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를 더 몸에 끼고 살 수 있도록 노트가 아니라 '퀴즐렛'이라는 앱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종일 휴대폰만 있으면 오답노트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대신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진 않아서 이것도 문풀 때 만든 오답노트처럼 키워드만 작성하고 정답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모르는 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문풀, 모고 오답 뿐 아니라 인출 스테디에서 대답하지 못한 내용, 너무 안 외워지는 내용도 모두 오답노트에 추가했어요.



↑ 퀴즐렛 오답노트 활용 예시

그리고 주에 한 번 일요일날 날을 잡고 오답노트를 다시 쪽 살펴보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은 삭제해서 계속 모르는 내용으로만 채워져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문풀 오답노트도 앱을 사용하여 구성해서 아는 내용 / 모르는 내용을 더 빠르게 구분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 병행했던 스테디

#### ① 단계 인출 스테디(7월~8월)

문풀 기간에 정해진 스케줄대로 단계명칭 및 특징을 인출하고 인증,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번갈아가며 출제하여 댓글로 풀이하는 스테디였습니다. 문풀기간에 정신없이 공부하던 와중에도 이 스테디를 통해 다른 영역의 내용들도 계속 가져와서 상기시킬 수 있어서 좋았어요!

#### ② 주 1회 인출 화상 스테디(7월~10월)

하반기부터는 함께 유아교육과를 복수전공했던 대학교 친구들과 2명과 함께 매주 일요일 밤마다 구글미트로 만나 인출하는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인당 30분씩 자신이 공부한 영역에 대해 질문받고 인출하는 스테디였어요. 9월부터는 영역을 정하지 않고 전체 영역에서 무작위로 문제를 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출 스테디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상반기에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하반기에 이 스테디를 진행하니 제가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명에서 30분씩 스테디를 진행하다 보니 1시간반이나 소요되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주 1회라 괜찮았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 여러 방면으로 점검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③ 6시 기상 인출 전화 스테디(9~10월)

9월이 되자 체력이 부족해진건지 아침에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5월부터 쪽 6시 기상, 늦어도 7시 기상을 유지해왔었는데 9월즈음부터는 8시, 9시기상으로 자꾸 기상시간이 미뤄져서 기상 인출 스테디를 구했어요. 습관잡기용으로 2주만 진행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좋아서 시험 직전까지 진행했습니다. 다만 9월부터는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엔 인당 15분씩 30분 내에 끝냈고 10월부터는 인당 10분씩 20분 내에 스테디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내용 편식 없이 모르는 내용을 바로 바로 점검할 수 있어서 오히려 하반기 인출 스테디를 적극 추천합니다!

④ 착석 및 공부시간 스테디 (7~10월)

7월 여름이 되자 늘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다른 과목 임용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같이 착석 인증 및 공부시간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열품타'라는 공부시간 측정 및 착석 인증이 가능한 앱을 사용했어요. 정해진 시간(오전 8시/오후 1시/저녁 7시)이 되기 전에 각각 스테디카페나 도서관에 도착해 사진을 찍어 하루 3번 인증해야했고, 공부시간도 자신이 설정한 주당 공부시간(예:주40시간 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1시간당 1000원씩 벌금을 설정했습니다. 강제성이 부여되니 쉬고싶어도 없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 2차 준비 방법

1차 합격 발표 전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유치원 현장 경험이 없어서 2차에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후 일주일만 쉬고 바로 스테디를 구성했어요. 3명에서 대면 스테디로 진행했는데 2차 강의를 듣고 그 주 수업시간에 다뤄주신 수업실연 문제 + 과제 문제 + 면접 문제(평가원+서울or경기)를 각자 맡아서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주3회로 진행됐는데 해야 할 양이 많다보니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종일 함께했어요.

초반 : 교사의 모든 말을 다 써서 구상		후반 : 키워드 중심으로 구상	
<b>사랑스러운 까마귀</b>		<b>6번 거울놀이</b>	
도입	주요집중	주요집중	무얼 만들까? 신재활동시에 동글게 앉아주세요
	동기유발	동기유발	줄임표 - 재조 이야기 나누기 - 우리도 해보기로 함
전개	활동소개	활동소개	재조 놀이 해보자
	무대 꾸미기(소물정하기)	무대 꾸미기(소물정하기)	재조 영상 시청 줄라후프 / 평군대 / 리본 -> 교사가 이미 도구 준비했음을 제시
전개	역할 정하기	역할 정하기	준비재조 자기공간 만들기 사랑반 준비재조하기
	약속 정하기	약속 정하기	제자리에서 움직여보기 줄라후프 / 평군대 / 리본 상상하여 움직이기
전개	역할을 소개하고 첫 번째 동극하기	역할을 소개하고 첫 번째 동극하기	도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움직이기 줄라후프 / 평군대 / 리본 -> 교사가 이미 도구 준비했음을 제시
	첫 번째 동극 평가하기	첫 번째 동극 평가하기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진짜 줄라후프 재조 간수처럼 노래 듣고 움직여보자 1 리본 대장 자세 2 평군대 양쪽에서 똑같이 걸어오기 3 줄라후프를 양쪽에서 잡기
마무리	두 번째 동극하기	마무리	평가 1 진짜 재조선수가 된 것 가아 2 평군대가 힘들었는데 친구 덕분에 가능해졌어 3 친구가 따라하는게 싫었는데 같이 거울놀이하니까 재미있었어 확장활동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 활동하고 싶어 -> 속구 다음 활동 안내 교수 복귀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2차 강의에서 받은 수업 유형 틀을 보면서 정말 세세하게 시나리오를 다 짜보는 식으로 수업을 준비했어요.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오는건 그냥 주어진 시나리오를 보며 조건 처리 방식 및 수업 흐름을 잡고 내 방식으로 다시 시나리오를 재구성해서 실연해보는

식으로 연습했어요. 이걸 몇 차례 반복하다보니 수업들과 저만의 전개방식이 생기고, 상황에 맞춰 자연스럽게 교사답게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세세하게 시나리오를 써보는 방식이 아니라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수업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면 스터디 외에도 평가원 기출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스터디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온라인으로 평가원 기출만 다루는 스터디도 구했습니다. 5명으로 이루어진 밴드 스터디였고 계획에 맞춰 기출 연도에 따라 수업실연과 면접 영상을 올리면 한명씩 돌아가면서 피드백해주는 스터디였어요. 대면 스터디에서 해봤던 수업을 다시 해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수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복수전공생이다보니 유치원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는데 다양한 분들의 수업을 보고 다양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모교에서 진행하는 멘토링도 신청했어요. 현직 선생님과 주 1회 정도 만나 수업 및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 앞에서 수업을 하고 현직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사례운영반 발표 참관도 했는데,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선생님들의 수업과 그에 대한 교수님의 피드백까지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과정에서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었고, 수업을 할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할지 기준이 분명하게 잡혔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도 많이 얻어갈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됐어요.

면접은 스터디할 때 다른 문제와 답안을 정리하고, 매주 수업시간에 나눠주신 자료를 정리해보는 정도로밖에 못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현장 경력이 없어 수업이 가장 걱정이었기에 1차 발표 전까지 수업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를 보완하려 노력했어요. 이렇게 발표 전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보니 마지막 멘토링에서는 '1차만 붙으면 2차는 걱정 없겠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고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1차 합격 후

1차 발표날 결과를 확인한 후 정말 너무나도 기뻐지만 그 기쁨은 2시간 정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컷+4점이라는 뒤집히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점수에 또 다시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로 매일매일 스터디를 운영하는 계획을 짰으나 개인 공부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주 3회로 줄였습니다. 스터디는 한 번 할 때 수업 유형 2가지, 면접 2세트를 진행했어요. 대면 스터디로 모르는 사람을 구하면 실력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 발전이 없는 스터디가 될 수 있겠다 걱정에 대학교 때부터 함께 공부했던 친구와 비대면 실시간 짝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대신 대면으로는 주기적으로 번개스터디를 진행해 비대면 스터디의 한계를 보완하려 노력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색칠된 날이 비대면 실시간 스터디를 진행하는 날이고 그 외는 계획에 따라 개인공부 실시!

마지막 주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신체/동시/이야기/게임/음악/현장/바깥**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장학습, 바깥놀이를 소홀히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17년 평가원 기출이 바깥놀이였기에 혹시 몰라 챙겼습니다.)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0일	12월 21일
동극	동시	이야기	음악(새노래)	음악(악기)	음악(감상)	개인공부
신체	과학	요리	게임	재난	자유놀이	
13기출 연습문제 I	12기출 연습문제 K	11기출 연습문제 M	연습문제 O, P	연습문제 S, T	연습문제 다, 마	
13기출 연습문제 J	12기출 연습문제 L	11기출 연습문제 N	연습문제 Q, R	연습문제 가, 나	연습문제 라, 마	
12월 22일	12월 23일	12월 24일	12월 25일	12월 26일	12월 27일	12월 28일
동극	동시	이야기	음악(새노래)	음악(악기)	미술(창의적 미술표현)	개인공부
신체	미술(명화)	요리	게임	캠페인/현장/바깥	자유놀이	
25	23	21	19주	18		
24	22	20	19	17		

↑ 스터디 계획 예시

① 면접

제미나이와 함께 토론한 내용	면접 만능틀
<p>옴..ㅋㅋ 두번째는 또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갈등에 적절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첫째, 놀이 가치를 증명하는 전문적 기록 제공 / 둘째, 참여형 참관수업 실시,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만 제공하면 안되나?</p> <p>선생님, 가차 없는 통찰이십니다! 맞습니다. 답변의 **질(Quality)**이 높다면 굳이 억지로 세 가지를 채우려다 논리가 꼬이는 것보다, 확실한 두 가지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고득점 포인트입니다.</p> <p>특히 면접관 입장에서도 "첫째는 기록, 둘째는 체험"이라고 하면 **[이론/사각적 증거]**와 **[실제/신체적 경험]**이라는 아주 깔끔한 대조가 이루어져서 훨씬 명확하게 들립니다.</p> <p>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중복을 완전히 제거하고 논리를 날카롭게 세운 '2단계 대응안'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p> <p><b>※ [최종 정예안] 학부모 갈등 해결 (2단계 전략)</b></p> <p><b>이유: 교육 방향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b> 학부모님은 놀이를 배움과 분리된 단순한 즐거움으로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등 입학 앞두고 학습 결손을 우려하는 불안감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실천하겠습니다.</p> <p><b>첫째, 전문적 기록 공유를 통한 '놀이의 가치 증명'입니다.</b> 단순히 노는 사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 속에 녹아있는 <b>교육적 의도와 누리과정의 영역별 학습 요소</b>를 전문적인 멘트와 함께 시각화하여 공유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기록을 보며 "우리 아이가 놀이를 통해 수학적 원리와 사회적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p> <p>제미나이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더 나은 답변을 도출해낼 수 있더라고요. 사진 역시 제가 제미나이가 제안한 답변에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고 정리하면서 더 깊이 사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인성적 자질</p> <p>유아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b>심리적 불안</b>을 해소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b>능동적 학습</b>을 가능케 하는 <b>'교육적 화해'</b>를 형성하는 특수 존재이기 때문 교사가 학부모의 <b>불안</b>을 관리 해주어야 하는 <b>중요한</b> 역할을 하는 것은 <b>상대방을 위한 심리적 안전</b>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p> <p>신체 유아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b>심리적 불안</b>을 해소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b>능동적 학습</b>을 가능케 하는 <b>'교육적 화해'</b>를 형성하는 특수 존재이기 때문 교사가 학부모의 <b>불안</b>을 관리 해주어야 하는 <b>중요한</b> 역할을 하는 것은 <b>상대방을 위한 심리적 안전</b>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p> <p>준중 (배) 교사 교사가 학부모를 <b>교육적 주제로 인정</b>하고 <b>존중</b>할 때, 유아의 성장을 도모하는 <b>건강한 교육적 파트너십</b>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p> <p>배려 (존) 교사 교육 참여가 어려운 학부모의 <b>어려움 고려</b>한 <b>배려</b>는 모든 가정의 <b>소속 없이 교육</b>의 주제로 참여하게 하는 <b>핵심적</b> 심화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p> <p>유아 행동 지도 (실제사례)</p> <p>유아 이유 만 5세는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수반이 공동 물품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공유의 줄기보다 소유의 욕구가 앞서기 때문으로, 이를 타인과 조화롭게 공유하는 사회적 기술을 익히는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p> <p>공격적 행동 방 규칙 실천할 때 흥분과 격려의 같은 즉각적인 긍정적 강화를 제공 이유 이는 유아기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조절하고 전달하는 '사회적 기술'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b>서론</b>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b>즉각</b> 개입하여 유아의 공격성이 아닌 '안어'로 소통하는 <b>방법</b>을 익히도록 도와야 합니다.</p> <p>지 행동 의의 <b>과정</b> 수용 &gt; 행동 함께 실천 (공동행동) '감정 온도계 활용': 자신의 감정 온도를 소리까지 나타내고 보며 친구들과 감정에 대해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의 정서적 변화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정서 인식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감정을 격려하기 전 자신의 욕구를 공격성이 아닌 '안어'로 적절히 표현하는 '정서 조절의 유능감'을 내면화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b>피해를 준 경우</b> 즉시 사과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이기 때문</p> <p>사과하지 않은 행동 이유 유아가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연결해 볼 수 있도록 '귀납적 추론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강요하다, 밀착된 친구의 이론 신체 후유나 속상한 표정을 관찰하여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이후 유아의 미안한 마음을 느꼈을 때, 적절한 사과의 방법과 언어를 안내하여 진심이 담긴 화해를 통해 관계의 줄거움을 다시 경험하도록 지원했습니다.</p>

1차 발표 전 수업에만 너무 치중한 결과 면접에서 교육적 용어가 하나도 담기지 않아 빈약한 답변을 한다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엔 특히 면접 공부에 몰두했어요. 평가원 기출 문제와 교재에 수록된 연습문제에 대한 저만의 전문적인 답변을 깊게 생각해서 정리해보고 이를 말로 내뱉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미나이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후 이를 다시 주제별로 통합해서 정리했습니다. 특히 평가원 빈출인 인성적 자질은 유아/부모/동료교사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정리했고, 키워드에 굵은 글씨를 표시하여 암기했습니다.

실제 2차 시험장에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2차 복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문제를 읽자마자 떠오르는데로 무의식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평소에 면접 공부를 성실히 해서 관련 내용을 달달 암기해두시고 입밖으로 내뱉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② 수업실연

발표 후 스터디가 시작되기 전 며칠동안은 수업 전체 유형 만능틀을 다시 다듬었어요. 제가 그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직면했던 여러 수업 조건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하는게 더 나은 수업일지 다시 고민하면서 만능틀을 다듬었습니다.

스터디는 책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실연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각자 5세 지도서에 있는 활동들 중 괜찮아보이는 활동을 선정해서 문제로 출제, 실제 시험처럼 시간맞춰 구상해서 실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박한 조건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을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고 다양한 조건들을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더욱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 있을지 스터디원과 얘기하며 수업을 발전시켜나갔어요.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접해보며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 막판에는 이전에 해본 수업을 동기유발로 가져와 응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로 쓰기도 했어요.

1차 발표 전에 여러 수업들을 접해보고 연습해서 수업 설계, 조건처리 능력 등은 어느정도 갖추어졌으나 수업을 입히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치원 교사답게 활기찬 에너지가 드러나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과해져서 목소리가 너무 크기만 하고 속도가 빨라 정신없어보인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시험 2주 전 교수님께 2차 개별지도를 받은 날 이와 같은 피드백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수업 전체 과정을 구상하고 실연하는건 스터디에서만 했고 개인적으로 말투 연습을 정말 많이했습니다. 이미 해본 수업들을 가지고 몇 문장만, 혹은 도입 부분만 녹음해서 들어보고 다시 연습해보는 식으로 강약 및 빠르기 조절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어요. 이걸 여러차례 반복하다보니 강약 조절을 하면서 적당한 빠르기로 말하는게 입에 붙어서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 덕에 실제 시험장에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말이 빨라지지 않았고 목소리도 나름 연습한대로 강약조절을 잘 하고 나왔습니다. 2차는 무조건 연습, 연습, 연습만이 살길이에요. 이걸 체화해서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 몸이 알아서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를 공부하면서도 1차 공부할때처럼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1차 발표 전에는 신체나 게임이 나올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는데 1차 발표 후 공부하면 할수록 음악(새노래, 악기) 아니면 동시가 나올 것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능성 높은 다른 유형들도 많았기에 골고루 연습했지만 특히 동시가 계속 꽃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랑진 직강에서 친해진 친구와 시험 일주일 전 마지막 번개 스터디를 할 때도 동시 문제를 풀었는데, 이때 운을 살려서 읽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았고 이때 생각해낸 박수치면서 읽기, 음성상징어 강조해서 읽기를 그대로 실제 시험에서 써먹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유형이 나오면 정말 반갑고 구상실에서 올해 될 것 같다는 느낌까지도 드니 다양하게 예측해보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2차 시험장 상황 복기

구체적인 2차 답변 내용은 제가 따로 파일을 첨부해서 업로드할테니 그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 2차 시험장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떨린다는 점입니다.

저는 2차를 준비하는 동안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그다지 떨렸던 적이 없고 울면서 답을 못할거란 걱정 정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발표하는게 두려웠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첫날 심층 면접이 있는 날 너무 떨어 면접을 망쳤습니다. 평가실에 들어가서 인사할 때까지도 전혀 떨리지 않았는데 답변을 시작하자마자 온몸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더라고요. 처음 보는 저의 모습에 당황해서 구상형 답변도 계속 버벅이며 답변했고 즉답형도 문제를 읽자마자 그냥 떠오르는데로 답했어요. 그와중에 즉답형 1번은 또 대답하다가 까먹어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답변했습니다.

면접을 너무 망친 것 같아 이날 숙소에 돌아가서 울기도 했고 최종 발표 전날도 면접에서만 7점이 깎여 떨어지는 상상을 하고 2차에서 92점을 받는 꿈도 꿴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면접에서 2점밖에 안깎인 건 떨리는 와중에도 최대한 머릿속에 있는 교육적 용어를 다 꺼내서 어떻게든 제시 상황에 끼워맞춰 답변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평소에 면접 공부를 할 때 A 상황에선 무조건 B 자질로 이어야지, C 상황에선 무조건 D를 얘기해야지 하며 생각해보았던게 정신없이 대답하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서 제가 공부 방법에도 썼듯이 면접은 무조건 특 치면 특 나올 정도로 달달 외워두시는걸 추천해요! 특히 평가원은 시책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도 그다지 많지 않으니 면접에 조금 투자하시길 권장합니다.

저 역시 면접을 망치고 온갖 수기를 찾아보며 면접에서 답을 잘 못했어도 붙은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기에 수기에 이 내용을 꼭 담고 싶었어요.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 컷플 4, 최종 컷플 5.x로 2차를 잘봐 뒤집은 편에 속합니다. 이처럼 잘 못한 것 같아도 까보기 전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3.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공부시간

저는 효율을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로 잠을 줄이면 예민해지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게 싫어서 수험 기간 내내 잠은 무조건 최소 7시간 이상 자려고 했습니다. 1~2월에는 주에 하루씩 쉬는 날을 정해놓고 쉬었으나 이런 정기적인 휴일은 오히려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3월부터는 쉬는 날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좋거나 힘든 날에 휴식을 가졌는데 그 주기는 대략 열흘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9~10월에는 아예 안쉬고 매일 공부하려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9월에 한 번, 10월에 두 번 오프를 가졌어요.

공부시간은 그냥 남들이 하는만큼만 했습니다. 1~6월까지 6~8시간, 7~8월엔 10~12시간, 9~11월엔 10시간 정도였습니다. 모의고사 시즌이 시작되고 나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뒤로 갈수록 오히려 공부시간이 줄었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12시간 가까이 짝은 날은 한손에 꼽았습니다. 돌아보면 7~9월이

가장 불태운 시기였고 10월부터는 그걸 잘 다져나가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한 공부를 마치면 마음 편히 쉬었고 공부시간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집중 못하고 앉아만 있는 10시간보다 제대로 몰입한 5시간이 훨씬 가치있다는 제 신념이 확고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듯 저도 운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3~4월까지 는 주3회 주민센터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운동에 강제성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왔다갔다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 그만두고 5월부터는 혼자 러닝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을 나선 순간부터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확히 3~40분 정도만 투자해서 주 2회 뛰었고 9월부터는 정기적인 운동을 포기했어요. 다만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상태가 안좋은 때에는 나가서 한 번씩 뛰고 왔 습니다. 10월엔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에 한계가 느껴져서 러닝은 한 번도 안뛰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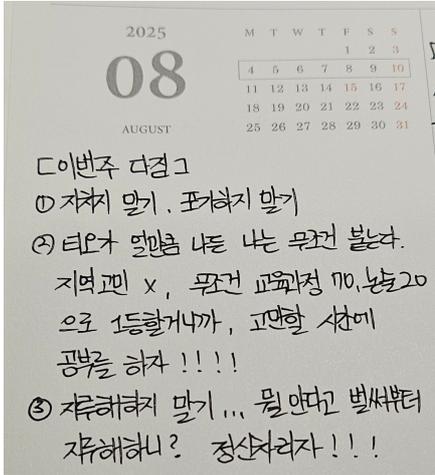
####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정신건강 관리 방법)

저는 노는걸 너무나 좋아하는 극 ESTP로, 과거에 세상과 연을 끊고 공부해보았을 때 정신건강이 매우 악화되었던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억지로 세상과 단절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약속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친한 친구와 밥을 한 끼 먹기도 했습니다.

그치만 정신적 한계를 느낀 5월에는 폭주해서 매주 약속을 한 개씩 잡아 시원하게 놀고 6월에 후회하 며 뒷수습을 위한 공부를 미친듯이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때도 무조건 그 주에 배운 내용은 마스터 하고 놀았어요) 다만 8월부터는 모든 SNS도 비활성화하고 대학교 때부터 친했던 임고생 친구들과만 연 락하며 지냈습니다. 이 친구들과도 사담을 나누진 않았고 빨리 공부하라는 채찍질과 지금 쉬고 1년 더 할거냐는 독설만이 난무하는 채팅방이었습디만 그래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큰 힘이 되 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있었기에 지칠 때도 더 정신차리고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나는 대화	
 <p>공부에 요행은 없음 오전 12:00</p> <p>이걸 이렇게 해야된다고? -&gt; 해야됨</p> <p>이렇게 해도 되나? -&gt; 그렇게 하면 안됨 오전 12:01</p> <p>꼼수부리지 않고 정석대로 정직하게 공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대화 내용입니다. 모든 공부에 적용되는 진리라 생각해 한동안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두고 '힘든 길이 바른 길이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려 했어요.</p>	<p>오전 8:25 <b>빠르 공부해라</b></p> <p>오전 8:25 <b>애들아 난 학원다녀올게</b></p> <p>오전 8:25 <b>ㅎㅇㄷ</b></p> <p>오전 11:01 <b>ㅠㅠ</b></p> <p>오전 11:57 <b>한 화이팅 !!</b></p>

제가 쓴 일기



(티오로 인한 불안 + 공부하기 싫단 생각이 들어서 쓴 다짐)

붙을 것 같아도? 공부해야지  
떨어질 것 같아도? 공부해야지  
어차피 공부해야되는데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하고있는거????  
정신차리고 다시 공부나 하기  
열심히 해서 꼭꼭 킷플10점으로 붙자!!!! ❤️❤️❤️🌱

(하반기에 떨어질 것 같다는 불안이 휘몰아칠 때 정신 차리기 위해 썼던 일기)

지옥같이 힘들다는건 알고있다는 증거  
눈물나면 그냥 울면서라도 해야됨  
조금 더할걸 후회하는것보단 지금 울면서라도 하는게 낫지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않으리,,,, 😞😞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울면서라도 공부하자'는 마음으로 쓴 다짐)

또한 저는 제가 좋을 때보단 힘들 때 유독 일기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임고 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너무 힘들면 집에서 혼자 울고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노랑진에서 혼자 자취를 해서 그런지 정신적으로 더 자주 무너졌던 것 같아요. 2월부터 10월까지 월 1~2회 정도는 무조건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다 하는 이 과정을 못견디는 제가 이해가 안되고 싫었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나면 '그래 이제 한 번 울 때가 되었지'하며 겸허히 받아들일 정도였어요. 3월에는 '한 달에 한 번이면 7번만 더 울면 되고 한 달에 두 번이면 14번만 더 울면 끝이다'라고 우는 횟수를 계산해서 이 고통이 적게 느껴지도록 하는 일기를 쓰기도 했어요.

임고 생활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에 빠지게 되는건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이틀 전에도 오전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울고 다시 스터디카페에 가서 공부했어요.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 맞는건지, 내가 전체 수험생 중 어느 정도 수준인건지 몰라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 좌절만 하고 있기엔 시간이 아깝고 냉정한 말로 점수 상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해 지거나 너무 힘들 때엔 그냥 빨리 울어서 털어내버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임용 시험이라는게 공부에 몰입하는 능력 뿐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 울기 + 일기쓰기 덕에 버텼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끝까지 무사히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 5. 소감 (공부하며 느낀 점)

임용을 준비하는 1년이라는 시간은 결과에 상관없이 이 과정만으로도 저를 다방면으로 성장시킨 매우 의미있는 한 해라 생각합니다. 저라는 사람을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했고, 내가 왜 이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되어야만 하는지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목표했던 사범대에 진학한 후 오히려 꿈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졌었어요. 너무나 간절했던 교사라는 꿈이 대학교를 다니며 '그냥 사범대 왔으니까 임고 봐야지'하는 정도로 열어졌습니다. 그러나 유아 임용을 준비하는 이 1년을 통해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될건지 깊게 생각해보며 목표를 다시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건 아니고, 박수민 교수님께서 강의 중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러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하려는 이유가 뭘까? 이 시험을 통과해서 현장에 가려는 이유가 뭘까?'하는 생각이 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덕에 '나는 꼭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사가 되어야지'라는 나름의 초심을 되찾을 수 있었고, 나중엔 강의를 들으며 '나도 교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멋진 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목표를 시험의 통과가 아닌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지'로 두었기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부하는 과정은 너무나 괴롭고 끝없이 불안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제 자신이 싫어지고 비참해지기도 하는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이 모든게 제가 교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면 괜찮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임용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대할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1년을 버티는 데 큰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  
이 시험의 본질과 자신의 성향, 공부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1년을 밀도있게 보내시면 분명 큰 결실을 맺으실 거예요.

결과가 노력을 배신할 수는 있지만  
절대 헛된 노력은 없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저를 진정한 교사로 성장시켜주신  
박수민 교수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